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 수 안

인제대학교
박사졸업

김 명 찬[†]

인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부교수

본 연구는 상담 대학원생들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하여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이 있는 7명의 상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7개의 상위범주, 31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75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상담 대학원생들에게 자문화기술지 연구는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진솔한 연구 방법’으로 경험되었으나, 한편 ‘갈등을 일으키는 연구 관문’과 ‘예상치 못한 난관과 극한의 고통’으로 인해 연구 진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극복 의지와 지지 그리고 사명감이라는 버팀목들’에 의해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으며, 연구 경험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경험적 글쓰기로 생겨난 이해와 변화’를 경험하고, ‘인간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다 깊어짐’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이러한 변화와 성장을 위한 ‘방법의 가치’는 연구자의 몫’임을 강조하였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그리고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상담 대학원생, 자문화기술지, 자기성찰, 연구 경험, 경험적 글쓰기

† 교신저자 : 김명찬, 인제대학교,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장영실관(E동) 515호

Tel: 055-320-3410, E-mail: vitachan0@gmail.com



Copyright ©2023, The Korean Counseling Psychological Associ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상담자의 주요 역할은 내담자가 자신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호소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 교육과 훈련의 목표는 양질의 효과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자를 양성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다. 전문상담자란 전문적인 상담교육과 충분한 숙련기간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상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전문상담자들은 주로 상담심리 교과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의 석사와 박사과정을 통해 배출되고 있다(최현국, 2020; 최해림, 김영혜, 2006).

상담에 대한 수요 및 관련 전공에 대한 관심 증가 그리고 자격에 대한 전문성 요구로, 국내에서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증설, 대학원대학교 및 원격대학원 설립, 상담관련 전공 학부 개설 등 국내 상담관련 전공의 정원이 대폭 증가하였으며(조남정 등, 2015), 대학원 과정의 심리관련 전공 학과 및 학생수가 2011년 170개 학과, 대학원생수 6,242명에서 2021년 294개 학과, 10,662명으로 증가하였다(교육통계서비스, 2021, 이경화, 이상희, 2022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담자 전문성의 기틀이 되는 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대학원생들의 질적 만족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진다. 상담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를 연도순으로 살펴보면 석사 교육과정을 다룬 연구(김정택, 도상금, 1993), 전문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및 전문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이재창, 1996),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심리 석 박사 교과과정에 대한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최해림, 김영혜, 2006), 석사과정에 대한 교육 만족도 분석 연구(조유진 등, 2010), 한국의 상담자 전문교육과정의 적합성 연구(최아롱, 2011), 상담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최현국, 2020) 등이 진행되었다. 이처럼 상담 대학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시작된 1993년부터 2023년까지 약 30년 동안 매우 미미하게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은 대학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 및 훈련이 상담자의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데 회의적이며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다. 상담 대학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2000년대 초반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하는 이론교육과 상담실습이 전문성을 확보하기에는 양적, 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표준화된 교육과정 개설과, 실습 위주의 교육 강화, 전문성 고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제안되었다(조유진 등, 2010; 황채운 등, 2009). 이러한 제안은 크게 개선된 것 같지 않다. 조유진 등(2010)의 연구를 살펴보면, 실습관련 교육의 비중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으며 전문성 고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기회가 개선되지 않아 학생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을 통해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아롱(2011)의 연구에서도 상담실습, 상담윤리, 상담면접 등 상담 실천 현장에서 요구되는 주요한 과목의 비중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장 근래에 진행된 상담 대학원 교육의 실태 연구(최현국, 2020)는 2011(최아롱)의 연구 자료에 기초함으로써 이후 교육과정 변화와 현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달리, 황채운 등(2009)은 상담자 교육 및 훈련에서의 전문성 확보란 단지 대학원에서 상담 관련 과목을 개설 및 증설하고, 실습 위주의 수업을 늘리는 등 공식적인 커리큘럼의 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상담의 전문성은 상담 실천 영역에서 부딪히는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특수한 문제 해결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것으로(Schön, 1983; 1987), 성찰역량과 통합적 발달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상담자의 전문적 훈련 과정에 이론적 교육과 연구수행 과정이 포함된다는 점에서(Skovholt & Starkey, 2010) 상담자의 자기성찰 연구동향(김수안, 김명찬, 2023)은 비록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현 시점의 대학원 교육 및 훈련의 실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자기성찰은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핵심기제로, 상담학 분야에서 성찰이나 성찰적 실천으로 혼용되고 있다. 연구결과, 국내에서 자기성찰에 중점을 둔 상담자 교육에 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실천 상황에서 진행되는 자기성찰을 의미하는 성찰적 실천을 다룬 연구에서도 연구 주체의 대부분이 대학교로 확인되었지만,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성찰적 실천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현국(2020)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원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의 대부분 교과목은 이론적 지식 습득 차원에 치중되어 있으며 성찰적 인식과 의도된 집중적 훈련을 촉진할 수 있는 실습과 수퍼비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상담 실습과 자기성찰을 접목하는 실험적인 연구들(김영은, 이현정; 2015; 이수영 등, 2015)과 같이 교육 및 훈련 현장에서 상담전공 학생의

성찰 역량을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적 시도들이 학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상담자의 전문성 발달’이라는 교육의 목적에 대응하는 상담 대학원 교육 및 훈련의 실상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성찰적 실천에 관한 연구는 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이지 아닌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 단기적 프로그램이나 연구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기 연구 방식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학원생의 자기 연구에 활용된 연구는 대부분 자문화기술지로, 국내 상담학 분야에서는 2015년부터 시작되어 2021년 9월까지 총 140편의 학위 및 학술 논문이 발표됨으로써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김수안, 김명찬, 2021).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특성을 지닌다. 즉,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에서 살피지 못했거나 간과된 삶의 파편들에 주목하게 하여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한 혼란스러운 퍼즐을 맞추는 글쓰기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Suominen, 2003). 자문화기술지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수행되는 특성으로, 많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비해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와 깊이 있는 부분까지 연구가 가능하다(김영천, 이동성, 2011). 김수안과 김명찬(2023)은 자문화기술지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의 자기성찰을 위한 방법론으로서 국내 상담학 분야에서 일정한 위치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내 자문화기술지 연구동향(김수안, 김명찬, 2021)에서도 자문화기술지 연구는 상담자 발달적 관점에서, 전문적 측면에 치중되어온 상담학 분야의 연

구의 범위를 개인적 측면으로 확장함으로써 전문성의 통합적 발달을 모색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자면, 자문화기술지 연구는 전문성의 핵심인 자기성찰을 독려하고 상담자의 개인적 측면과 전문적 측면의 통합적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상담 대학원생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문화기술지가 상담자의 성찰역량 및 통합적 전문성 확보를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으로서 검증되어야 할 요소들이 있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Chang, 2008; Jones, 2005)는 점에서, 연구자이자 연구 참여자라는 이중역할(Rober, & Rosenblatt, 2017)로 ‘부분적 유리한 지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리고 명확한 연구방법과 연구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김영천, 이동성, 2011) 등 연구방법으로서 취약한 측면과 미흡한 질적 수준(김수안, 김명찬, 2021; 서유진, 2020; 이동성, 2016)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자도 여러 편의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수행하면서 학술지 투고 과정이나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이 없는 연구자들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로부터 객관성을 담보한 연구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피드백을 받은 경험이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자문화기술자인 이동성(2016)은 자신이 지도했거나 심사한 많은 자문화기술지 연구가 학술의 장에서 사장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국내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국내 자문화기술지는 다섯 가지 질적 평가 영역 및 준거-연구 설계, 연구대상 및 연구배경, 자료 수집 및 관리, 자료 분석 및 해석, 타당도 검증

및 재현방식 영역-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방법론적 엄밀성이 확인되었다. 서유진(2020)은 특수교육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방법론으로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주관적 자료에 대한 진실성과 신뢰성 확보, 자료 분석 방법의 적합성, 경험에 대한 사회·문화적 해석과 통찰, 신뢰도와 윤리성 검증 등이 보완되어야 할 구체적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김수안과 김명찬(2021)의 국내 상담학 분야의 자문화기술지 연구동향에서도 연구 유형이나 글쓰기 방법, 자료 분석 방법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거나 연구 윤리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은 연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으로서의 취약한 특성과 낮은 학술적 엄밀성(이동성, 2016)에도 불구하고, 자문화기술지는 상담 대학원생의 자기 탐색의 연구방법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원생의 자기성찰 촉진을 위한 주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연구란 이론 및 상담 실제와 더불어 전문상담자 양성을 위한 교육의 핵심요소라는 것이 학계의 일관된 관점이다(조유진 등,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자문화기술지 연구에 대한 상담 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은 전문성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수안과 김명찬(2023)은 연구자의 주관적 세계를 다루는 자문화기술지가 상담자 자기성찰을 위한 유용하고 타당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문화기술지 연구과정의 어떠한 측면이 경험에 대한 이해와 통찰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자문화기술지가 상담자의 성찰역량과 통합적 발달을 촉진하는

연구방법으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론적 특성-연구자의 이중역할 및 주관적 경험의 적극적 활용(Chang, 2008; Jones, 2005; Rober, & Rosenblatt, 2017; 김영천, 이동성, 2011에서 재인용)-과 성찰의 특성인 모호성(Morrisette, 2002)을 보다 우선적으로 규명해 나갈 필요가 있다. 즉, 상담학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경험을 탐구한다는 것과 이중역할로 인한 유리한 지점이 지니는 의미를 재고함은 물론 자문화기술지 연구가 과연 상담자의 자기성찰(성찰적 실천)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상의 규명과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연구자이자 연구 참여자로서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연구 수행이 상담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그 경험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자문화기술지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선입견과 선이해를 경계하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볼 수 있도록’ 판단중지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 연구는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포착하기 힘든 내적 체험을 지각하고 반성할 수 있다(이남인, 2006). 특히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은 인간의 의식 속에 드러나는 것으로서의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충실한 방법론으로 체계적인 분석방법과 절차를 밟아 나간다는 데에 과학적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조영매, 2017). 이러한 Giorgi의 기술적 현상학 연구는 상담 대학원생들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에서의 주관적인 내적 체험의 본질과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과정은 상담

대학원생들의 연구 수행 경험의 본질과 그 의미를 파악함으로써 상담 분야의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의의 그리고 활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침, 그리고 교육 및 훈련에서의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상담 대학원생들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방 법

연구방법

현상학은 발생한 현상의 근원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인식의 주체가 경험하는 현상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법론에 바탕을 둔다(조영매, 2017). 현상의 본질이란 후설(Husserl)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연구하는 대상들이 그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무엇으로, 대상의 겉모습을 바꾼다 해도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유기웅 등, 2018). 본 연구에서는 상담 대학원생들이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에서 무엇을 경험하는지 그 본질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descriptive phenomenology)을 활용하였다.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상황적 구조 진술을 통해 참여자 개인의 독특성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전체 참여자의 경험을 일반적 구조 진술을 통해 통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김영천, 2016). 그러므로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에 대한 각각의 개별적 경험의 의미를 파악함과 동시에 개별적 경험의 전형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자는 국내에서 발표된 상담학 분야의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활용한 학위 및 학술지 논문 총 107편을 검색하였다. 선정 대상이 된 논문은 대학원 재학 당시 수행된 자문화기술지 연구로, 연구자는 먼저 초록을 통해 Ellis와 Adams(2014)가 제안한 자문화기술지 평가 준거-기여성, 미확성, 성찰성, 영향력, 현실성-가 잘 구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논문을 선별하였다. 다음 선별된 논문에 대해 ‘연구 주제가 실질적 삶의 측면에 기여 하는지’, ‘자료의 텍스트가 연구자의 경험을 예술적(문학적)으로 잘 표현 되었는지’, ‘연구자의 주관적 경험이 새로운 이해와 관점으로 변화 하는지’, ‘연구가 자신과 타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료의 텍스트가 생생한 경험의 감각을 구현 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꼼꼼하게 읽은 후, 최종적으로 10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의 연구자에게 먼저 전화를 통해 ‘상담학 분야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의의 탐구’라는 연

구의 목적을 안내한 후 연구에 대한 사전안내문과 동의서를 메일로 발송하였다. 최종적으로 7명의 연구 참여자의 연구 동기가 이루어졌고 심층면담이 진행되었다. 참여자 중 3명은 연구자와 동일한 경남 소재지 대학교 출신으로 확인되었으며, 3명은 전북 지역에, 1명은 서울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참여자 성별은 여자 6명, 남자 1명으로, 연령은 20대에서 40대까지로 분포되었다. 참여자들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은 먼저 석사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함께 출판한 경우가 5명, 학술지 논문으로만 출판한 경우가 2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참여자 6은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2번의 학술지 출판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상담 및 심리치료학과 출신으로 이어서는 상담 대학원생으로 통일하였다. 참여자들의 대략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자

본 연구의 연구자 중 1인은 상담전공 교수로 학회 및 대학에서 다수의 질적 연구방법론

표 1. 연구 참여자 정보

번호	성별	연령	학력	상담경력	자문화기술지 연구경험	
					학위	학술지
1	여	30대	박사과정	5년	0	1
2	여	30대	석사졸업	6년	1	1
3	남	20대	석사졸업	3년	1	1
4	여	40대	석사졸업	1년	1	1
5	여	30대	석사졸업	3년	1	1
6	여	40대	박사과정	1년	1	2
7	여	40대	박사과정	16년	0	1

에 관한 워크숍과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여러 편의 자문화기술지 논문 출판과 다수의 자문화기술지 논문 지도 경험으로,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에 대한 이해가 깊고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상담전공 박사로서, 질적 연구 및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론에 관한 워크숍을 수강한 바 있다. 또한 현상학적 연구 1편과 자문화기술지 연구 3편을 출판한 경험이 있으며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론에 대한 높은 관심이 있다. 이러한 경험으로, 자문화기술지 연구에 대한 연구자의 선이해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는 연구 시작에 있어 자신의 경험을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경험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대학원 재학 당시 자문화기술지인 지도교수의 권유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적 경험을 노출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학업중단을 고려할 정도의 거부감을 경험하였다. 2) 연구자의 사적 경험을 다루는 과정은 심리적 고통을 동반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개인적 경험과 전문적 경험을 함께 다루었는데, 모두 연구자의 고통스러운 사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었기에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3) 연구자는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관계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사적 경험을 연구를 통해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연구 경험을 나눔으로써 관계가 친밀해졌다. 이러한 선이해는 연구자의 강력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참여자들과의 심층 면접에서 유도된 질문으로 편향되거나 자료 수집 및 분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 연구자는 이러한 선이해를 지속적으로 괄호치기하면서 판단중지 하고자 노력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경남에 소재지를 둔 3명의 참여자들은 대면 방식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는 4명의 참여자들은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에 앞서 전화와 메일로 연구 절차를 전달하고, 서면을 통해 연구동의를 받았다. 면담 질문은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에 관한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서부터 종결 이후까지 자문화기술지 연구와 관련된 모든 경험에 관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 질문지는 자문화기술지를 포함한 다수의 질적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교수 1인과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관련 박사 1인의 검토를 받아 작성을 완료하였다. 면담질문지의 주요 내용은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시작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문화기술지 연구 과정은 어떠했나요?, 자문화기술지 연구 후, 연구 수행 경험이 연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등으로 구성되었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가지고 진행되었으며, 진술의 흐름에 따른 부가적 질문을 통해 각 참여자들의 경험의 독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심층면담은 2022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실시되었으며 면담시간은 1시간 10분에서 2시간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심층면담이 끝난 후에도 추가 질문이 확인될 경우, 전화 면담 및 메일을 통해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료 수집과정에 연구자의 연구경험에서 나온 자료들이 개입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기록하면서 수집되는 자료들 간에 괄호치기(bracketing)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Giorgi(2004)의 기술적 현상학은 연구자의 선입견에서 벗어나 개별적이고 상황적인 맥락 속에서 참여자들의 생생하고 주관적인 경험의 의미를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한다. 본 연구는 Giorgi의 현상학 연구방법에 따라 참여자의 기술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먼저 참여자들의 녹취 자료를 축어록으로 작성한 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낯선 시선으로 전체 내용과 느낌을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전사 자료의 의미단위를 구분하기 위해, 자문화기술지 연구경험과 연관이 없는 부분은 괄호 치기를 하며 연구 참여자 언어 그대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셋째,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참여자 경험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초점을 유지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총 214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이 중에서 의미가 겹치거나 구조 형성의 맥락에서 벗어나는 의미단위들을 제외한 75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여 성찰과 상상력을 통해 심리학적 언어로 변형하였고, 변형할 언어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 참여자의 진술에 따라 표현하였다. 다섯째, 변형된 의미단위를 연구현상에 대한 일반적 구조적 기술로 통합하였다. 그 결과 31개의 하위범주와 7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범주의 의미들은 2인의 논의 과정을 거쳐, '상담 대학원생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도출되었다. 경험의 본질과 구조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었다.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가 제안한 질적연구

의 진실성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 및 해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연구의 '사실적 가치(truth value)'를 충족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메일로 전달하여 자신의 경험을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검토하도록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경우, 문자나 메일을 통해 수정을 요청하였다. 참여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설명한다.'였으며, 한 참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이 너무나 유사하여 집단상담 같은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하였다. 다음, '적용성(applicability)'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는 자문화기술지 연구경험이 있는 상담학 박사수료생 2인에게 연구결과가 자신의 연구 경험에 적용 가능한지 문의하였다. 이들은 연구결과가 전반적으로 자신의 연구 경험을 반영하면서도 저마다의 독특한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새롭게 알게 되어 흥미로웠다고 피드백 하였다. 연구의 '일관성(consistency)' 확보에 대해 상담전공 박사과정생 1인과 박사수료생 1인에게 의미단위 구분 및 범주화 등에 대해 검토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의 '중립성(neutrality)' 확보를 위해 연구자의 선이해와 가정 등을 연구자 1인과 논의해 나가고 수집된 자료에 메모해 나감으로써 판단중지를 점검하였다.

결 과

상담 분야 대학원생들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경험은 Giorgi의 분석방법에 따라 구분된 총 214개의 의미단위 중 중복되거나 맥락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제외한 75개의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의미단위들을 다시 31개의 하위

표 2.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의 상황적 구조기술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지도교수의 연구와 추천으로 접함	변두리에서 접하게 된 연구방법	
워크숍이나 다른 사람의 논문을 통해 알게 되면서 관심을 가짐		
개인적인 경험을 논문으로 쓰는 것이 굉장히 진솔하고 신선했으며 놀랍고 흥미로움	나의 경험을 진솔하게 탐색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	
나의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성찰해나가는 데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여겨짐		
공감적인 학회 발표 경험이 신선했고 자신도 수용과 위로 받음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방법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담을 수 있는 진솔한 연구방법
연구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변화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미있겠다고 생각됨		
자신이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불편한 감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 싶음	해결하고 싶은 불편한 감정들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수치심과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음		
상담자의 미해결 문제가 상담에 미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음		
자신의 경험에 대해 스스로 집중하여 드러내는 것이 더 진실 되고 훨씬 생생할 것 같음	가장 적절한 연구자이자 연구대상인 나	
자신이 가장 적절한 연구대상임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 겁나고 고민되었지만 극복과 성장을 위한 것으로 용기가 남	자기 공개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	
연구모임에서 안정감을 경험하여 공개하는 것에 자신감이 생김		
논문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이 시도와 도전이 됨		
가족의 좋지 않은 경험을 공개하는 것이 걱정됨	가족 공개에 대한 걱정과 우려	갈등을 일으키는 연구의 관문
상담분야에 속하지 않은 일반사람들의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걱정됨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어 수위조절과 한계를 설정함		
어머니가 마지못해 허락하심	가볍게 처리된 가족 동의	
가족들에게 연구 동의를 명확하게 구하지 않고 가볍게 처리함		
학문적 자료라 논문에 게재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함.	진중하게 다루어진 내담자 동의	
내담자의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논문으로 내고 싶은 경험을 솔직하게 나눔		
연구방법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작업하여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두려움	훈련되지 못한 연구자	예상치 못한 난관과 극한의 고통
부모와 관련된 기억과 감정에 접근하는 것이 힘들		
나만의 고유한 경험이라는 생각과 달리 보편적인 경험이란 것을 알고 시작과정이 막막해짐	생각지도 못했던 난제들	

표 2.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의 상황적 구조기술

(계속 1)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대단하게 혹은 좋지 않게 반응하는 외부의 시선으로 겁이 나고 두려움을 느낌	안전하지 않은 연구 환경	예상치 못한 난관과 극한의 고통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서 연구를 진행하려니 진행과정이 막히고 힘들		
안전감을 느낄 수 없는 연구 환경이 도전이 되고 걱정됨		
자신의 수치스럽고 초라한 감정을 재 경험하는 것이 힘들어 연구하는 것이 고민됨	지독한 고통과 힘들의 연속	
나의 경험에 대해 쓰는 것이 너무 힘들어 미루는 것이 반복됨		
죽고 싶을 정도의 극한으로 몰고 가는 최고의 스트레스가 됨		
고통과 우울로 변 아웃이 될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됨	변화와 성장을 향한 분투	
스스로 극복함으로써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싶음		
연구에 의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란 기대와 믿음이 있음		
예술 매체를 이용한 자기작업으로 감정을 해소하며 버텨냄	함께 나눔으로써 덜어지는 고통과 힘들	극복 의지와 지지 그리고 사명감이라는 버팀목들
지금까지 꺼내기 힘들었던 감정을 함께 나누면서 편안함과 여유가 생김		
나의 아픔과 힘들음을 나누고 주관적인 작업을 보완하는데 지도교수와 동료들이 의지가 됨		
연구의 맥을 잡고 안정감을 확보하는데 상담의 도움을 받음	연구방법의 어려움 해소	
연구방법론에 대한 강의를 청강하게 되어 두려움이 해소됨		
연구방법에 대해 지도교수와 다양한 자료를 통해 도움을 받음		
연구 과정에서 기억이 떠오르고 감정이 생생하게 살아남	깊은 공감으로 피어난 사명감	
선행연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이 더 깊이 이해되고 공감되어 힘이 됨.		
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음		
연구 과정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단초를 발견함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의 시작	
논문을 쓰면서 연구 주제가 삶의 핵심 문제였음을 깨닫게 됨		
연구를 진행하면서 말하기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 가볍게 나눌 수 있게 됨		
연구를 통해 가족도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게 되어 함께 나눌 수 있게 됨	가벼워지는 문제, 나눌 수 있는 관계	경험적 글쓰기로 생겨난 이해와 변화
학술지 투고를 통해 자신을 더 깊이 탐색하게 되고 배우게 됨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지 못해 아쉬움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을 갖지 못하여 논문에 분명하게 담아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음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	

표 2.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의 상황적 구조기술

(계속 2)

의미단위	하위범주	상위범주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글로 기록하는 연구 과정이 변화에 도움이 됨	변화를 가져온 경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글쓰기	경험적 글쓰기로 생겨난 이해와 변화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살피는 것이 도움이 됨		
자신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감정들에서 자유로워짐	자유로움 그리고 자신의 소중함	
잘 견뎌온 자신이 대견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짐		
자신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긴 것 같음		
연구 경험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됨	자신감과 자기 돌봄의 방법 획득	
연구 후에도 의식적인 성찰이 계속되어 습관화가 됨		
논문 작업으로 성장한 것 같았으나 현실을 직시하게 되면서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연구결과가 거짓인 것 같음	자신의 부족한 측면에 대한 직시	
사람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 강점과 좋은 점이 더 잘 보임		
자신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힘듦과 부족함을 이해하게 됨	점차 통합되어가는 관점	
자신과 타인의 경험이 분리되어 타인의 삶을 더 이해하게 됨		
자기 조절이 되면서 관계가 편안해짐		인간적으로,
문제에서 자유로워지니 관계가 수월해지고 깊어짐	집착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보다
관계가 좋지 않아도 괜찮으며 집착하지 않음	편안해지는 관계	깊어지다
관계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기주장을 할 수 있음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떳떳해짐으로써 상담에서 애쓰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게 됨	마음이 열리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내담자의 경험을 이해하고자 함	진솔해지는 상담관계	
내담자에게 자신의 부족을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관계가 진솔해짐		
내담자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향상되고 유연해짐	유연해지고 나아지는 전문적 역량	
자신과 내담자의 문제에 다양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함		
상담에서 전이·역전이를 생각하고 조절하는 것이 조금씩 가능해짐		
자신의 경험에 대한 몰입으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함	자기 이해에서 타인	
내담자 이해를 위해 우선되는 상담자 자기이해의 방법이 됨	이해로 귀결되는 방법	
연구 경험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됨	삶의	방법의 가치는
의미 있는 연구는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연구자의 준비로 가능함	터닝 포인트를 위한 준비	연구자의 몫

범주로 축약하였으며 본질적 주제인 7개의 상위범주로 구성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별 사례들은 상황적 구조기술로 제시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포괄적 경험은 일반적 구조기술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한 상황적 구조기술

범주 1: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다룰 수 있는 진술한 연구방법

첫 번째 범주는 참여자들이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접하게 된 경로와 첫 인상 그리고 연구 동기를 나타낸다. 이 범주는 ‘변두리에서 접하게 된 연구방법’, ‘나의 경험을 진술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방법’, ‘해결하고 싶은 불편한 감정들’, ‘가장 적절한 연구자이자 연구 대상인 나’의 5가지 하위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변두리에서 접하게 된 연구방법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하였다. 자문화기술자인 지도교수의 논문과 권유를 통해 알게 되었거나 평소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접하게 되었다. 다르게는 선배나 동료의 논문이나 워크숍 또는 자기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찾던 중 논문 검색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되었다.

“저랑 같이 대학교를 졸업했던 동기가 자문화기술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연구 방법론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질적 탐구학회가 마침 전주대에서 열

렸었거든요. 그때 자문화기술지라는 게 좀 제가 관심 있던 분야였다는 걸 좀 더 자세하게 들으면서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나의 경험을 진술하게 탐색하기에 적절한 연구방법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통된 첫인상은 학술적인 논문에 개인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공개한다는 사실에 대한 놀라움과 흥미로움이었다. 기존의 정형화되고 실증적인 연구 대신 개인의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집중하여 연구한다는 것이 신선하였으며 수치스러운 개인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평소 자기 탐색에 관심이 있었던 참여자는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이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참여자7은 학술지 논문에 사적인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다른 연구 과정에서는 접하기 힘든 상담자의 내밀한 경험을 진술하게 풀어내는 과정이 보람 있는 작업으로 생각되었다. 참여자5는 학회 발표 상황에서 울먹이는 발표자에 대한 주최자들의 공감적이고 수용적인 반응을 보며 ‘어떤 얘기가 감정을 표현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더욱 연구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나의 감정들이나 나의 모습들이 하나씩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자기 탐색을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어. (중략) 그리고 그 방법이 지금

저한테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참여자 3)

변화와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방법

참여자들은 자문화기술지 논문에 나타난 보편적인 연구결과-자신의 경험을 이해함으로써 변화와 성장하다-를 통해 연구 수행과정이 변화와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즉, 처음에는 자신의 불편하고 부족한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결국에는 아픈 만큼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으로 여겨졌다. 참여자6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자신에 대한 탐색 및 변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화기술지의 접근방식이 좋았다고 하였다. 참여자7은 석사논문으로 인한 허탈감과 보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부족감을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해소하고자 하였다.

“자문화의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뒤에 성찰 같은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뒤에는... (중략) 내가 나를 연구하면서 내가 뭔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도움이 되겠다.” (참여자 6)

해결하고 싶은 불편한 감정들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힘들게 하거나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불편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오랫동안 자신을 힘들게 한 불편한 감정이나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사건으로 깊이 탐색할 수 없었던 경험을 연구 주제로 다룸으로써 이해하고 해결하고 싶었다. 참여자7은 상담자의 미해결 문제가 상담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을 다루어나가는 방법의 중요

성을 절감하고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자 하였다.

“어쩌면 내가 마지막 가지고 있는 의문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상담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떠리는 다 알겠는데. 상담을 받아서 다루었는데도 왜 나는 이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지 늘 그게 만연하게 지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언뜻언뜻 지나가는 조금의 불쾌감이 굉장히 좀 싫었거든요.” (참여자 4)

가장 적절한 연구자이자 연구대상인 나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는 자신이 가장 적절한 연구자이자 연구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유능한 상담자라도 자신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타인이 개입하면 솔직하게 밀바닥까지 다 꺼내놓을 수 없을 것 같고 혼자 집중해서 자신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것이 더 진실할 것 같았다. 참여자5는 자신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음악치료사로서 치료사의 열등감과 일반적인 열등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연구대상이라고 하였다.

“어떻게 보면 좀 교만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셀프 슈퍼비전을,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 경험을 그냥 드러내는 게 이게 뭔가 훨씬 더 생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참

여자 7)”

범주 2: 갈등을 일으키는 연구의 관문

두 번째 범주는 질적 연구의 시작에 있어서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참여자 경험의 공개와 이에 대한 동의에 관한 하위범주들을 포함한다. 다만 연구자가 곧 연구 참여자가 되는 자문화기술지의 특성으로 다른 질적 연구와는 차별되는 독특성이 확인되었다. 하위범주들은 ‘자기 공개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 ‘가족 공개에 대한 걱정과 우려’, ‘가볍게 처리된 가족 동의’, ‘진중하게 다루어진 내담자 동의’로 나타났다.

자기 공개에 대한 용기와 자신감

참여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세상에 공개한다는 것이 겁이 나고 걱정되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절실함으로, 치료사로서 성장하고 싶은 절박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다. 참여자6은 자문화기술지 연구모임을 통해 지금까지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문제를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공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나를 노출시키는 것도 하나의 내가 성장하는 경험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이고 그게 안 되니까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였고 ... 더 넓게 보면 그래서 솔직히 얘기할 때 불편하고 또 그 사람들의 표정 뭐 저런 얘기까지 할까라고 하는 반응들도 받고 했지만 그냥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중략) 하지만 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이 열등감만 가진 사람이 아니야, 난 더 많은 게

있지 이러면서”(참여자 5)

가족 공개에 대한 걱정과 우려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다루는 과정에서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가족의 경험을 공개하게 된다. 가족의 사적 경험을 공개하는 것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공개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참여자들은 가족의 노출하고 싶지 않은 경험을 공개한다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꼈고 우려감을 경험하였다. 참여자6은 사람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담분야와는 달리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육 분야의 동료나 일반사람들의 자살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으로 공개에 대해 고민하였다.

“사실 OO가 얼마나 초라하고 속상했는지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좀 걱정이 되었어요. (중략) 진짜 공론화했을 때 불특정 다수가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음을 앞두면 몰라 아직은 안 될 것 같은데..(중략) 수위조절... 제가 한계 설정을 좀 했어요.”(참여자 1)

가볍게 처리된 가족 동의

특히 개인의 사적 경험을 다루는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다루고 싶은 욕구와 가족의 경험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미안함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가족들에게 연구 동의를 명확하게 구하지 못하고 가볍게 처리하였다. 몇몇 참여자들의 어머니는 가족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꺼려졌지만 자녀의 학업과 관련된 연구로 괜찮다고

하거나 용기를 내 보겠다며 마지못해 허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도 연구 동의에 대해 명확하게 안내하고 동의서를 받기보다 가볍게 언급하거나 참여자 스스로 학문적 자료이기에 괜찮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사실은 조금 허락을 구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를 사전에 봐서 알았지만 이것도 약간의 저의 적개심이었던 것 같은데 OO에 대한 적개심? 그냥 이렇게 약간의 공격성을 드러내는 수단이 됐던 것도 같아요. 동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OO 근데 이거 저거 되지 뭐 그렇게 물어보고 그래 니 건데 니가 알아서 해라” (참여자 1)

진중하게 다루어진 내담자 동의

연구에 대한 가족의 동의가 가볍게 처리된 것과 달리 상담관계에서는 연구 동의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아동상담자인 참여자7은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의 부모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았으며, 연구에 참여시키고 싶은 상담 중인 내담자의 경우, 어머니에게 자녀와의 상담 과정에서 상담자가 성찰하며 배운 경험을 논문에 쓰고 싶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여 흔쾌히 동의를 받게 되었다.

범주 3: 예상치 못한 난관과 극한의 고통

세 번째 범주는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본격적인 시작단계와 자료 수집단계를 포함한다. ‘훈련되지 못한 연구자’,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 ‘안전하지 않은 연구 환경’, ‘지독한 고통과 힘듦의 연속’의 하위범주들이 확인

되었다.

훈련되지 못한 연구자

연구를 시작하면서 참여자들 대부분은 자신이 연구방법에 대해 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하였다. 다른 연구를 하는 동료들에 비해 자신이 훈련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이 진행하는 연구 방식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막막함을 경험하였다. 또한 연구자가 연구대상으로 주로 혼자 해나가야 하는 자문화기술지의 특성으로 다른 질적 연구에 비해 객관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꼈다.

“아무튼 그때 좀 많은 방법론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방법론이 좋고 매력적이지만 선행 연구가 너무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어 쓰면서도 이게 내가 지금 맞게 쓰고 있는 건가? (중략) 그래서 자문화기술지라고 붙어 있지만 내가 정말 이 방법론에 대해서 잘 안다고 얘기를 하고 쓸 수 있는 걸까?” (참여자 5)

생각지도 못했던 난제들

연구방법 이외에도 참여자들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여자로서 차별받았던 자신의 경험이 독특하고 고유하다는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연구의 가능성에 대해 의문과 막막함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료 수집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관련된 기억과 감정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두려움으로 곤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데 뭔가 쓰려고 하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때 안 그래도 동료 선생님이 저 보더니 안아주시면서 나는 선생님이 웃으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난 아무 감정이 없는데 이게 왜 아픈 거지? 나는 괜찮은데 (중략) 그래서 막 어저지로 막 뭔가 했던 느낌이 들어요. 생각이 떠오르는 건 없고, 경험도 없고 뭘 적어야 되지? 이러면서...” (참여자 6)

안전하지 않은 연구 환경

참여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은 참여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적인 상황에서도 경험되었다. 개인의 경험을 다루는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대담하게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나 굳이 학위논문으로 개인의 경험을 다루어야 하느냐는 교수들의 피드백은 두려움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협력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 지도교수나 가족과의 관계가 불편하여 연구 과정이 힘들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함을 경험하였다. 참여자 5는 지도교수 외에 친밀했던 동기나 선후배가 없어 논문 지도를 받거나 발표하는 상황이 하나의 도전이 되기도 하였다.

“그냥 엄마랑 인터뷰하는 것도 싫지, 엄마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것도 싫고 그거 막 얘기할 때마다 싸우니까, 아직도 엄마는 저한테 불편한 사람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소통하는 과정도 힘들고 그걸 옮기는 과정도 힘들고 내가 성찰하는 것도 힘들고 그 글 써놓

은 걸 다시 계속 그냥 글을 쓰고 딱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글을 계속 해석해 나가는 과정도 힘들고...” (참여자 4)

지독한 고통과 힘듦의 연속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재 경험하게 되는 고통스런 작업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수치스럽고 초라한 감정을 재 경험하는 것이 힘들어 연구하는 것이 갈등되었으며 작업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을 반복하였다. 자문화기술지 연구 과정은 참여자들에게 지독한 고통으로 일상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최고의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수치스러움도 있었고 뭔가 스스로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연민의 감정이라고 해야 되나, 왜 굳이 남들 앞에서 그렇게 너가 망가져야 됐고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를 돌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미안함도 있었고 (중략) 불쌍한 감정이 너무 커서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를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고통이 먼저 딱 떠올라요. 맞아요. 나를 피상적으로 머리로든 마음으로든 일단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위 논문을 해야 된다는 목표가 나한테는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 하는, 근데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게 진짜 백번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한테 엄청난 스트레스와 겁을 주는 거는 이게

내 삶의 이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 6)

범주 4: 극복 의지와 지지 그리고 사명감이 라는 버팀목들

네 번째 범주는 연구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난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던 다양한 버팀목들에 대한 내용이다. 하위범주로 ‘변화와 성장을 향한 분투’, ‘함께 나눔으로써 덜어지는 고통과 힘듦’, ‘연구방법의 어려움 해소’, ‘연대의 식으로 생겨난 사명감’이 포함되었다.

변화와 성장을 향한 분투

고통과 힘듦의 연속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짐으로써 떳떳해지고 싶었다. 즉 연구를 통해 치료사로서 그리고 연구자로서 자질에 대한 불안과 부족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자문화기술지는 방법만 다를 뿐 상담과 같이 의미 있는 과정으로, 연구에 의해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란 기대와 믿음이 큰 버팀목으로 작용하였다. 일부 참여자들은 예술 매체를 활용한 자기작업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며 버텨나가기도 하였다.

“그렇게 조그마한 애가 맨날 죽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런 삶을 버텨다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는 질문이 뭘까 그 질문에 있어 보니까 너무 잘 살고 싶었더라고요. 그렇게 죽을힘을 다해 죽고 싶은 거를 참아왔는데 이거 내가 뭐 이거 못 견디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략) 이런 마음이 들고 참 감사하

더라고요.” (참여자 4)

“이걸 읽으면서 먹물에 맑은 물을 이렇게 부으면 이게 다시 맑아지는데 그런 과정으로 보였어요. 이걸 내가 드러내놓고 내가 직면하고 내가 그러면서 내 안에서 어떻게든 이걸 통합시키려고 하고 소화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라서 당연히 의미 있을 거다. 약간 이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참여자 1)

“저는 예술 기반 자문화기술지여서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계속 마음을 객관적으로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예술을 사용했기 때문에 감정이랑 조금 떨어져야 할 때는 그걸 그림으로 다 표출해내고 좀 다시 객관적으로 돌아오고. 그랬던 과정들이어서 저는 예술 활동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함께 나눔으로써 덜어지는 고통과 힘듦

지금까지 타인과 나누기 힘들었던 자신의 경험을 지도교수나 연구모임 그리고 가까운 지인 등의 조력자와 함께 나누는 경험은 참여자들의 고통의 강도를 줄이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참여자 혼자 진행하는 주관적인 작업을 보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연구의 맥을 잡고 안정감을 확보하는 데 상담자의 조력을 받기도 하였다.

“그거를 누구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제 못한 부분이잖아요. (중략) 제 안에 그게 있었는데 그냥 꺼내놓고 이거

를 상상해 봤을 때 약간 그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 같아요. 그냥 연구 과정에서 너무 힘들 때 친하게 지내는 동생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하다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아빠한테 사랑받고 싶었구나. 이거를 조금 인정하고 나니까 그 다른 감정들은 조금 돌아보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솔직히 자문화기술지라는 게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게 가장 단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경험을 읽는 사람들이 최대한 그대로 이해를 할 수 있게 글로 적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작업을 할 때 이제 교수님이나 동료들이 옆에서 말해주는 걸 듣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면서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3)

“개인 분석이나 집단 상담 이런 걸 하면서 좀 그 감정을 다루고 하니까 교수님 말 들을 건 좀 듣고 그렇게 하면서 좀 고쳐가고 다듬어갔는데...” (참여자 1)

연구방법의 어려움 해소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을 받지 못한 참여자들은 연구방법에 대한 청강의 기회, 지도교수의 도움, 선배들의 논문, 그리고 연구방법에 대한 교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막막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OO교대 교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문화기술지 한 학기 수업을 청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배우면서 조금 제 연구를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불안들을 다 해소해 주셨거든요. 좀 그때 그 혼란이나 그런 두려움들이 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깊은 공감으로 피어난 사명감

참여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더 생생하게 경험하고 깊은 공감과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즉, 외상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이 떠오르지 않아 곤란을 겪었던 참여자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경험들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었다. 선행연구를 읽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실제로 접촉하고 관계한 것처럼 공감되었으며 큰 울림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 또한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연구를 지속하였다.

“일단 다른 사람의 아픔들을 보는 게 ‘아 우리 다 아프지’ 일단은 선행 연구 조사에서 저는 좀 많이 울림을 받았거든요. 정말로 이 자문화를 읽는 것이 마치 떨어져서 집단 상담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사는데 나도 살아야지 하는 좀 더 힘이 나는 효과도 있었고요. 일단 선행 연구에서 과정이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참여자 1)

“그래서 성폭력에 관해서는 어떤 책임감이 되게 좀 컸어요. 그래서 망할 것 같다. 마지막은 거의 그냥 포기 그 부분에 너무 괴로워서 그냥 모르겠다. 또 공부하다 보니까 연대의식 이런 것도 생기

고 하니까 어떤 중압감이 심했어요.” (참여자 4)

범주 5: 경험적 글쓰기로 생겨난 이해와 변화

다섯 번째 범주는 연구 마무리 단계로 연구 결과 도출 및 투고 과정에서의 경험을 포함한다.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의 시작’, ‘가벼워지는 문제, 나눌 수 있는 관계’, ‘투고를 통한 더 깊은 배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 ‘변화를 가져온 경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글쓰기’의 다섯 가지 하위범주가 확인되었다.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의 시작

연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경험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참여자들은 가벼움과 안정감을 경험하면서 연구의 주제가 자신의 삶을 묵직하게 지배하고 힘들게 한 평생의 이슈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참여자 4는 이전에는 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되었지만, 자문화기술지가 요구하는 사회문화적인 자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상담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을 알게 되었다.

“이게 수치심이 형성되는 과정만을 그렇게 조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중략) 그리고 나서 일생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여기 자문화에 없는 내용도 제가 느껴졌어요. 이게 그래서 건드렸구나, 그러니까 제가 너무 깊이 이해되고 그러고는 거기서도 또 카타르시스나 해방감 같은 걸 느꼈죠.” (참여자 1)

“자문화기술지를 쓰면서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다가 작업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냥 그 언저리에 머물고 있었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여러 가지 반응들에서 제가 굳이 그 주제를 선택하지 않았나...” (참여자 2)

가벼워지는 문제, 나눌 수 있는 관계

자신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의 시작으로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말하기 힘들었던 경험들 가족이나 지인과 나눌 수 있을 만큼 편안해지고 용기를 낼 수 있었다. 자문화기술지 연구 과정은 참여자뿐만 아니라 가족 또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참여자 2는 연구 결과를 쓰면서 이전에는 쉽게 물을 수 없었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물어볼 수 있을 정도로 관계가 편해지기 시작하였다.

“동기들이 웃겼던 게 뭐 하다가 나 잘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거 너도 열등감 이야 빨리 써 그러면 또 그냥 이렇게 우스개 소리로 얘기할 수 있고, 나도 그래 나 열등감 있어 그랬어. 뭐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수준까지... 아무튼 그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5)

“아프지만 OO도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그냥 저 앞에만 보면 죄인이 되는 것 같아서 저를 만나기가 싫대요. (중략)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덜 가식적 이어졌어요. 우리는 좋은 것만 나눌 수 있었는데 부정적인 걸 나누는 하나의 틈

새 아직도 여전히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의 틈이 생긴 것 같아요.” (참여자 1)

투고를 통한 더 깊은 배움

자신의 경험적 자료를 학술적 자료로 공식화하는 과정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술지의 높은 심사 수준을 맞추기 위해 참여자들은 학위논문 과정보다 더 깊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됨으로써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7은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을 통해 적절한 지도를 받지 못한 채 혼자 주관적인 기준으로 작업함으로써 자신이 발견할 수 없었던 논문의 맹점을 깨닫게 되었다.

“독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이게 뭔가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라는 것에 그냥 제가 도취가 돼가지고 그냥 저만의 이제 나르시시즘에 빠져가지고 그 논문을 썼던 그 기간들이 되게 좀 심사평을 들으면서 되게 이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많이 반성이 되고 진짜 내가 이거를 놓치고 있었구나.” (참여자 7)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이야기들

학위논문이나 학술지로 출판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지 못해 많은 아쉬움을 경험했다. 연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도 성찰이 지속되어 새로운 깨달음이 이어졌지만, 참여자들은 많이 지친 상태로 더 이상 논문을 수정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다. 또한 엄청난 노력과 많은 성찰의 과정으로 나온

결론임에도 학술지 조건을 맞추기 위해 많은 부분을 신지 못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7은 심사에 낼 때까지 상담자로서 자신의 문제를 일반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객관화하는 작업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도 하였다.

“수정 후 게재가 나와서 그분들이 준 피드백을 보고 나서 제가 고치면서 보니까 서론이랑 결과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못 담았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서론이랑 논의를 쓰기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략) 그때 당시에 너는 성추행이니까! 강간은 아니니까! 이 지독한 소리가 아직도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로 힘들었다. 내가 명확하게 성추행도 성폭력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거다. 이 목소리를 못 냈던 것 같아요.” (참여자 4)

변화를 가져온 경험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글쓰기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로 경험에 대한 다차원적 관점과 글쓰기를 언급하였다. 즉,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경험의 다양한 측면을 살피며 글로 기록하는 연구과정이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기이해를 촉진하는 수업이나 상담과 달리 스스로 자신의 경험에 집중하여 들여다보고 글로 적어내는 글쓰기를 통해 많은 깨달음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참여자 4는 연구를 통해 죄책감에 대한 뇌, 진화 관련 부분 등 다양한 측면을 살피는 과정에서 자유로움을 경험하였으며 참여자 5는 자신의 경험이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볼 수 있게 개방된다는 것이 변화에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난다고 하였다.

“완전히 완전히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졌어요. 근데 그건 뭐 그게 억지로 된 건 아니죠. 공부를 많이 했어요. 책 논문 그와 관련된 거 뭐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중략) 뭘 알아야 뭐가 바뀌는 건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됐어요.” (참여자 4)

“그거를 내가 상담을 받아도 되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좀 상담보다는, 내가 나를 뭔가 탐색하는 거기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상담은 딱 정해진 시간에 받는 건데 순식간에 감정이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내 감정을 내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또 글로 적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좀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상담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고.” (참여자 6)

범주 6: 인간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다 깊어지다

여섯 번째 범주는 참여자들이 보고한 자문화기술지 연구 이후의 경험이다. ‘자유로움 그리고 자신의 소중함’, ‘자신감과 자기 돌봄의 방법 획득’, ‘자신의 부족한 측면에 대한 직시’, ‘점차 통합되어가는 관점’, ‘집착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관계’, ‘마음이 열리고 진솔해지는 상담관계’, ‘유연해지고 나아지는 전문적 역량’의 7가지 하위범주를 포함한다.

자유로움 그리고 자신의 소중함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자신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던 감정들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경험하였다. 즉, 자신을 지배했던 부정적인 감정이 축소되었으며 용서할 수 없었던 자신의 경험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6은 사회적인 편견이나 시선을 통해 아버지의 자살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 편안함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자유로움과 함께 참여자들은 지금까지 잘 견뎌온 자신이 대견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타인을 먼저 챙기던 행동이 자신을 먼저 고려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참여자 7은 자신의 치유되지 않은 아픔과 불안 때문에 내담자들에게 실수했다는 것을 성찰하게 되면서 실수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전보다 더 너그러워졌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내 삶에 수치심이 내 존재를 다 설명하는, 장악하는 그런 주제였다면, 이제 그게 나의 하나의 일부로 축소가 되고 이제 작아졌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당당해진 것 같아요.” (참여자 1)

“왠지 모르게 그냥 위축된 것 같고, 내가 잘못된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로워졌다고 해야 되나? (중략) 물론 눈치는 보기는 하는데 나를 내려놓고 남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먼저 가지고 남한테 맞춰 맞추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자신감과 자기 돌봄의 방법 획득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어려움을 해소해 낸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도 뭔가 해볼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참여자 5는 최근에도 ‘잘 못할 거야’라는 기분이 들었지만 논문을 썼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힘을 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으로 성찰하고 이해해 나갔던 경험은 연구가 끝난 후에도 지속되어 습관화됨으로써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자 역량이 되었다. 참여자 7은 자신의 역전이를 글쓰기로 출간을 함으로써 훨씬 기억이 잘되며 비슷한 좌절상황에서 성찰 경험들이 활성화되어 덜 흔들리게 되었다.

“뭔가 나를 더 돌볼 수 있는 힘과 뭔가 방법을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뭔가 내가 힘들어도 그게 당연한 거고 내가 지쳐도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다면 지금은 그래도 내가 힘들고 지친 거를 인지할 수 있게 됐고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제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참여자 3)

“자문화기술지는 연구를 통해서 성찰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찰한 내용을 글로 적어가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조금 그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성찰들이 좀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예전엔 그냥 경험을 했더라면, 약간 이게 어떤 의미구나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니까 조금 그걸 연결하는 게 좀 빨라진다...” (참여자 2)

“예전에는 이렇게 명명화하기 전까지는 그냥 짜증이 나는가 보다, 화가 나는가 보다,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뭔가 기분이 나쁜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냈었는데 이제는 이 감정이 혹시 이것 때문에 느끼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면 이 감정은 내가 느끼는 걸까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건가 (중략) 감정에 대해서 뭔가 조금 아직 이슈나 걸리는 게 남아 있구나.” (참여자 5)

자신의 부족한 측면에 대한 직시

참여자들은 변화와 성장이라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좌절상황에서 자신의 미흡한 모습을 직면하기도 하였다. 참여자 3는 상담현장에서 여전히 부족한 자신의 역량을 직면하게 되었으며 참여자 5는 구직에 대한 실패감으로 연구 결과가 마치 가식인 것만 같은 느낌을 진솔하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점차 통합되어가는 관점

연구를 통한 자기 이해의 경험으로, 참여자들의 사람에 대한 관점은 보다 통합되어 갔다. 즉 이전과 달리 사람에 대한 강점과 좋은 점이 더 부각되거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인도 힘들고 부족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적인 관점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타인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참여자 5는 이전에는 열등감을 가진 자신과 친해지려는 타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타인 또한 자신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조금씩 자유로워졌다.

“오히려 이 자문화기술지를 통해서 엄

마가 사실 나보다 더 단단했구나. 약간 엄마를 제가 보호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약간 열어봤을 때 생각보다 엄마는 슬픔을 우리에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엄마는 단단하게 헤쳐 나가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참여자 2)

“그런 자살 생존자를 바라볼 때 마음이 예전에는 나도 그런 아픔을 같이 봐야 되니까 피하고 싶고 (중략) 나도 같이 막 경험이 엉켜 있다고 해야 되나 (중략) 근데 내 경험과 그분의 경험이 조금 분리가 되는 느낌 그리고 그분들을 바라볼 때 좀 더 그분의 삶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6)

집착하지 않고 편안해지는 관계

사람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과 분리가 가능해지면서 참여자들의 대인관계는 편안해지고 수월해지기 시작하였다. 자신에 대한 성찰이 가능해지면서 격한 감정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을 옥죄던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져 관계가 편안해지고 깊어졌다. 이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문제시 되거나 무리에 속해지려고 애를 썼지만 지금은 관계가 좋지 않아도 집착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다. 또는 관계에서 위축되고 버림받을까봐 소극적이었던 이전과 달리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어떤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 관계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아 하는 걸 확인하는 또 한 편의 장이 된

것 같고요.” (참여자 1)

“엄마가 아직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상처받고 약간 쭈그러든 채로 말 하는데 요즘은 싸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그냥 그것도 좀 바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참여자 5)

마음이 열리고 진솔해지는 상담관계

참여자들의 자기 이해와 관계에서의 자유로움의 경험은 상담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참여자들은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뭔가 해주려고 애쓰기보다 자신의 힘을 빼고 비움으로써 내담자를 이전보다 더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내담자 문제에 대해서도 일반화하거나 자신의 간헐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내담자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한 상담자로서 전문성의 부족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진솔한 관계를 경험하였다.

“특히 한 부모 가정인 내담자를 만날 때도 있고, 다문화 가정을 만날 때도 있고 한테 (중략) 내담자의 행동, 감정 그런 것들을 딱 그냥 제 경험만으로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그래도 내 경험뿐만이 아닌 한 번 더 내담자의 경험은 어땠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객관화를 시키는 것 같아요.” (참여자 3)

유연해지고 나아지는 전문적 역량

자신의 경험을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해 나가는 연구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상담자로

서 내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이 보다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공감, 반영, 구체화, 한계 설정 등의 상담 기술은 물론 이전보다 더 내담자의 힘을 믿고 기다리며 다양한 대안과 관점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자신의 경험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환경을 고려하는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으로 내담자의 문제에서 환경의 영향을 더욱 고려할 수 있게 되었으며 상담자의 역전이 등을 알아차리고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3는 수퍼비전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역전이를 상담 과정에서 스스로 알아차리고 성찰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에는 아무래도 경험도 많이 없었고 해서 좀 내담자를 많이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활동 안에서 내가 준비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연구를 다 끝나고 나서는 내담자들을 좀 기다려줄 줄 아는 여유가 그래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참여자 3)

범주 7: 방법의 가치는 연구자의 몫

일곱 번째 범주는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의의에 대한 것이다. ‘자기 이해에서 타인 이해로 귀결되는 방법’과 ‘삶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준비’의 두 가지 하위범주를 포함한다.

자기 이해에서 타인 이해로 귀결되는 방법

참여자들은 자문화기술지에 대해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점검하고 직면함으로써 새로운 태도를 체화시키는 과정이 된다.’고 보았다. 참여자 3는 나 자신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자문화기술지의 특성으로 더 깊게 자신을 마주

할 수 있었다. 참여자 4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면서, 공부에서 끝나지 않고 성찰하고 새로운 태도와 인식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과정이 순환되어 상담으로도 해소되지 못한 부분까지 치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으므로 자문화기술지는 상담자에게도 의미 있는 연구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온전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험이 잘 없거든요. 개인 상담에서나 좀 맞봤지 근데 이렇게 해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자문화기술지는 자기의 here and now를 경험하는 특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내 경험들을 조금 더 파헤쳐보고 그때 생각지도 않았던 장면들이 연결해서 떠오르고 그래서 제가 더 확실하게 더 커지는 느낌이 있어요.” (참여자 1)

삶의 터닝 포인트를 위한 준비

참여자들에게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은 개인적으로, 전문적으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참여자 2는 혼자 해내기에 두려움이 너무 컸지만 자문화기술지를 통해 인생의 숙제를 끝낸 기분이라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5는 지금의 치료사로 올 수 있게끔 열등감이라는 키워드와 자문화기술지를 하게 된 여러 과정들이 운명적이라고 느꼈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자문화기술지가 의미와 가치를 지닌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연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의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하였다. 참여자 4는 자문화기술지가 자신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글이 나오므로 제대로만 한다면 어떤 상담보다 치유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게 정말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뭔가 감정에 대해서 특히 저는 좀 심도 깊게 다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정들을 이해할 때 엄청 뭉뚱그려진 느낌으로 좀 이해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논문 작업을 하면서 좀 감정들에 대해서 좀 깊이 다루고 하나의 감정이라도 여러 가지로 알게 되었고 좀 중심 감정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 2)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한 일반적 구조기술

일반적 구조 기술은 참여자들이 진술한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상황적 구조진술에서 제시된 범주 간의 상호연관성에 따라 기술하는데 초점을 둔다. 상황적 구조진술에 따른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 대학원생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의 일반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참여자들은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에 대해 대부분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지도교수의 추천이나 동료의 논문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첫인상은 놀라움과 흥미로움으로, 개인의 비밀스런 사적 경험을 학술적 자료인 연구논문으로 다룬다는 점이었다. 자문화기술지는 참여자들에게 진술하고 수용적인 연구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즉, 개인의 경험을 진술하게 펼칠 수 있는 자문화기술지는 자신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었던 참여자들에게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여겨졌으며 개인의 어떤 경험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인상으로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공개

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연구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 변화와 성장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참여자들은 오랫동안 경험하고 있었던 수치심과 죄책감과 같은 불편한 감정들을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싶었다. 상담자의 전문적 경험을 다룬 참여자 역시 상담 관계 및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의 미해결 문제를 연구를 통해 다루고자 하였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탐색하는데 타인이 개입하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다루는 것이 훨씬 진술하고 생생할 수 있기에 자신이 가장 적절한 연구자이자 연구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연구에 앞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탐색하고 싶은 욕구와 가족의 경험을 공개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우려로 갈등을 경험하였다. 자신의 사적 경험을 공개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지만 변화와 성장에 대한 욕구로 용기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공개하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미안함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결국 참여자들은 공개 수위를 설정하거나 연구에 대한 가족의 동의를 공식적이고 명확하게 받는 대신 가볍게 처리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연구 시작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난관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연구방법에 대한 미숙함, 연구 주제의 선택오류, 기억과 감정에 대한 접근 어려움 등 생각지도 못한 난관과 맞닥뜨렸다. 자문화기술지를 바라보는 보편적이지 않은 시선과 교수 및 동료와의 불편한 관계 등 안전하지 않은 연구 환경 또한 두려움과 힘듦으로 경험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난관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럽고 초라한 부정적인 감정의 재 경험이었다. 참여자들은 지독한

고통으로 연구를 이루는 것을 반복하였고 고통과 우울로 일상을 지속하는데 지장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스스로 극복함으로써 개인으로서, 전문가로서 자신에게 떳떳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고통과 힘들음을 이겨나갔다. 또한 연구에 의해 결국은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고통과 힘들음을 버티는 데 동력이 되었다. 일부 예술 매체를 활용하는 참여자들은 고통과 힘들음을 예술로 해소하며 버티어나가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지도교수, 연구 동료, 지인-과 경험을 함께 나누는 경험은 참여자들의 고통과 힘들음을 줄이고 문제의 가벼움과 보편성을 경험하게 하였으며, 주관적인 작업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상담을 통해 연구와 관련된 혼란스럽고 불편한 감정과 고민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지도교수는 참여자들에게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에 대한 청강의 기회를 알선해 주거나 자료를 제공해줌으로써 연구방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자문화기술지 연구에 있어서 선행연구는 참여자들에게 의외의 기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과 유사한 자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 억압되었던 기억과 감정을 생생하게 되살릴 수 있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더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공감과 이해로 참여자들은 자신 또한 연구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여하고 싶은 사명감이 생겨 더욱 더 책임감 있게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이해와 깨달음이 일어났다. 참여자들은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단초를 발견하게 되

었으며 자신이 선택한 연구 주제가 삶의 핵심적인 문제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이러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자신에게 힘들고 무거웠던 경험이 가벼워지기 시작하였으며 가까운 사람들과 조금씩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출판을 목표로 한 연구과정은 학술지의 높은 심사기준에 부합되어야하기에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관적 경험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참고하면서 더 깊은 배움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학술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많은 성찰의 자료들을 신지 못하거나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을 갖지 못해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차원적인 관점을 가지고 글로 기록해 나가는 과정이 자신의 변화와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자문화기술지 연구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과의 관계 및 대인 관계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자신을 힘들게 억압했던 감정에서 보다 자유로워졌으며 자신의 소중함과 자신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연구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성찰의 습관화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 반면, 참여자들은 변화와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자신을 직시하며 마치 연구결과가 거짓인 것 같이 느끼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사람의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을 수용하는 통합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서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좀 더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 참여자들은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자기 조절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으며 관계가 편안해지고 수월해져 갔다. 비록 관계가 좋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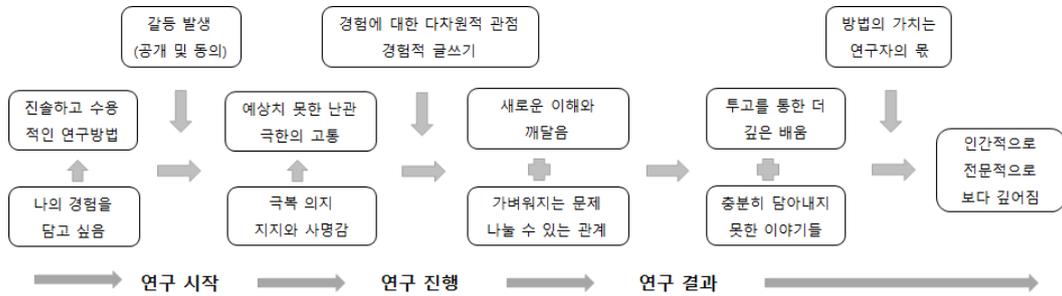


그림 1.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에 대한 일반적 구조

않아도 크게 개의치 않으며, 자기주장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대인 관계에서의 변화는 상담관계에서도 이어졌다. 참여자들은 이전과 같이 상담에서 애쓰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내담자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자신의 부족을 얘기할 수 있는 진솔한 관계가 가능해졌다. 상담자로서 내담자 환경을 더욱 고려하고 전이·역전이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등 전문적 역량이 조금씩 개선되어 갔다.

참여자들은 자문화기술지 연구가 자신에 대한 깊은 몰입의 경험으로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상담자의 자기 및 타인 이해 방법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충실하게 노력하며 이행할 수 있는 연구자의 준비성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상담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자문화기술지 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 대학원생 7

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담 대학원생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경험의 구조와 의미는 총 7가지의 상위범주, 31개의 하위범주, 75개의 의미단위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이해에 대한 높은 요구를 지닌 상담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화기술지 연구는 자기탐색을 위한 유용한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상담 대학원생들의 자기 이해에 대한 높은 요구는 다른 분야와는 차별되는 상담 분야의 고유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내담자와의 인간관계에 기초하는 상담에서 상담자는 가장 중요한 치료적 도구로서 전문적 역량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자질이 강조되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된다. 왜냐하면 상담자의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 가치 등은 상담 관계에서 역전이를 일으키거나 상담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Alis et al., 2018; Tobin & McCurdy, 2006). 또한 상담자가 자신의 미해결 문제나 자신의 상처를 인식하지 못하면 상담관계에서 인정이나 친밀감과

같은 자신의 무의식적 소망을 채울 위험이 있다(Wheeler, 2007; Wimberly, 1997). 그러므로 상담자는 상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Dimaggio et al. (2008)의 이론적 관찰, 임상적, 증거, 그리고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한 자기성찰과 마음읽기 연구에서도 개인이 자신의 삶의 에피소드를 성찰하고 탐색할수록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더 잘 파악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므로 자신의 마음에 대한 상세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상담자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이장호 등, 2005) 자신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상담자의 해결되지 않은 자기 문제에 대한 자각과 이해는 대학원 교육과정에서도 내담자 이해와 함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대학원 교육과정에 의한 학습자의 자기이해 및 수용경험은 여러 연구(김경희, 임은미, 2014; 김은하, 백지연, 2019; 이상현, 이규미, 2011; 채유경, 2019; Murphy, 2005; Richards, 2002)를 통해 보고되어 온 바 있다. 황채운 외(2009)의 연구에서도 상담 대학원의 석사과정은 끊임없이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즉, 대학원 교육과정에서의 이론, 실습은 물론 수련과정에서 요구되는 자기분석, 수퍼비전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 석사생들 자신에 대한 성찰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교육경험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자격 관련 수련과정에서도 상담자의 자기이해를 위해 개인분석이나 집단상담 그리고 수퍼비전의 횡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상담자가 되기 위한 학습의 과정이나 환경 그리고 임상 상황은 끊임없이 자기이해의 필요성을 촉발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담 대학원생들의 자기이해는 대부분 외부 전문가의 지도와 촉진에 의한 것으로,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자기이해와 문제해결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수퍼비전이나 교육분석은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상담 대학원생들이 충분히 경험하기 힘든 실정이다(송슬기, 2022). 특히 상담자들이 대학원 과정이나 졸업 후 상담 현장에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대학원은 학습자와 실무자의 접점에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담 대학원생이 학습한 지식은 대부분 외적 전문성에 의한 것이며(Skovholt & Rønnestad, 1992), 상담자의 해결하지 못한 자기문제는 초심상담자로서 자질에 대한 자기의 심으로 어려움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송슬기, 2022; 정경빈, 조성호, 2009). 김길민과 정남운(2004)의 연구 및 이은진과 이문희(2015)의 연구에서도 초보 상담자들은 상담 장면에서 전문적 역량의 미흡함뿐만 아니라 해결되지 못한 자신의 문제로 인한 혼란을 겪게 되고, 전문가로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마주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화기술지는 상담 대학원생들에게 진술하고 수용적인 연구방법으로, 자신의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경험이나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하고 실질적인 연구방법으로 인식되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슈를 지니고 있었는데, 개인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자문화기술지가 어떠한 이야기나 감정도 담을

수 있는 연구방법으로 여겨졌으며, 특히 전문가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이 연구자가 되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 즉,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취약점으로 간주되었던 방법론적 특성-주관적 경험과 이중역할-은 상담학 분야의 특성-상담자의 자기 이해에 대한 요구- 및 상담실무자로서 요건-내적 전문성 함양-과 맞물려 결과적으로 상담 대학원생들의 개인적·전문적 요구에 부응하는 이점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자문화기술지는 포스트모던 철학(postmodern philosophy) 혹은 해석학적 현상학(hermeneutic phenomenology)에 근거함으로써 개인의 목소리와 반영성(reflexivity)를 강조한다(Berry, 2006; Duncan, 2004; Wall, 2006). 즉, 저자의 목소리와 성찰을 강조하는 자문화기술지는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과 성찰에 더하여 자아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인 이해를 풀어낸다(Jones, 2005, 김영천, 이동성, 2011에서 재인용). 이러한 특성으로 기존의 실증주의 관점에 기초한 사회과학 분야 그리고 주로 타자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방법에 익숙해져 왔던 참여자들에게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은 지금까지 배제되어 왔던 연구자의 주관적 경험을 상담심리 이론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관점을 통해 이해를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학습의 장으로 경험되었다.

연구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 탐구활동(고홍월 외, 2013)으로, 관심주체에 대해 연구자의 온 마음과 정신을 집중시키는 최고도의 학습과정이 되는 주체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자문화기술지에 대한 상담 대학원생들의 높은 선호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자기 이해와 상담전문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결하고 싶은 전문적 효능감에 대한 갈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즉, 자문화기술지는 자신이 전문가가 되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통제력 있는 활동의 기회가 되는 셈이다. 상담 분야 교육 모델인 과학자-실무자 모델(scientist practitioner model)에서는 상담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와 실무의 선순환을 강조해 왔다(안현의, 2003; Belar, 2000; Gerald, 1998). 연구는 상담 분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견, 해석, 정정, 재확인할 수 있으며(이윤주 외, 2014), 연구와 실무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상담자의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고 이를 통해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 내담자를 바라볼 수 있게 되며 더욱 발전된 상담 이론을 실제 상담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유진 등, 2010; 김영진, 김명찬, 2021에서 재인용). 더욱이 상담자 전문성 발달에 있어서 연구, 실무 경험, 개인적인 삶의 통합적 균형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Skovholt & Starkey, 2010), 개인적(사적) 경험을 아우르는 자문화기술지는 통합적 발달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할 만하다.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경험을 다룬 참여자7을 제외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자신의 사적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다루었다는 점은 국내 상담분야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상담분야 자문화기술지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자문화기술지 연구동향(이동성, 2016)과 특수교육 분야 자문화기술지 연구동향(서유진, 2020)에서 확인된 주체가 대부분 교사(전문가)의 직무 경험인 반면 상담 분야에서는 개인적(사적) 경험이 주(약 80%)를 이룬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수안, 김명찬, 2021). 이와 같이 자문화기술지는 상담자 전문성의 통합적 발달 측면에서 상담자의 ‘개

인적인 삶'과 '실무 경험'을 '연구'로 구현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독특한 효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담 분야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독특한 경향성은 대학원 교육과 훈련에서 탐구 대상으로서 상담자의 개인적(사적) 경험이 지니는 의의와 활용방안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상담 대학원생들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의 대략적인 특징은 연구 윤리 갈등, 정서적 고통, 그리고 경험적 글쓰기로 확인되었다. 학위 및 학술지 논문의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연구 시작단계에서 연구자는 불확실함과 막막함의 내적 위기감으로 회피와 접근의 시행착오를 겪게 되지만 연구에 대한 내적 동기와 주변의 지지와 지원으로 연구를 끝까지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김영진, 김명찬, 2021; 박지현, 김현주, 2020). 연구 결과,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에서도 유사한 경험이 확인되었지만, 연구자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다룬다는 점에서 연구 과정에서의 전형적인 경험과 차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되었다. 먼저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 자신은 물론 경험과 관련된 다양한 참여자들이 발생한다. 국내 상담 분야 자문화기술지 연구 동향(김수안, 김명찬, 2021)에 의하면 연구 참여자 중 가족의 비중(약 50%)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문화기술지 연구에 참여되는 가족은 연구자의 노출로 완전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참여자들은 참여자7이 내담자의 부모에게 연구 목적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전달하고 동의서를 작성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것과는 달리 가족들의 연구 동의를 가볍게 언급하거나 모호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

이 자문화기술지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연구 윤리는 연구자의 '이중역할로 인한 유리한 지점'의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연구자의 경험을 다루는 자문화기술지의 특성으로 연구에 참여되는 인물이나 기관 등은 연구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참여자(기관)들에 대한 윤리적 의무 또한 간과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와 관계 없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전제하는 IRB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지만(Ellis, 2007; 이현진, 김명찬, 2018에서 재인용), 연구 참여자(기관)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이동성(2016)도 자문화기술지 또한 일반적인 질적 연구방법과 같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어야 하며 연구에 등장하는 인물과 기관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타자들의 인권과 기관 및 조직의 명예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와 연구 윤리는 일부 접점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상담학 분야 자문화기술지 연구(김수안, 김명찬, 2021)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Duncan(2004)의 평가 준거는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고, 연구자의 자기 이익이나 만족을 견제하기 위해 도구의 유용성을 증명하며, 다양한 증거자료와 동료의 검토를 통해 구성타당도를 확보하고, 외부타당도를 위해 다른 상황에서의 적용을 확인하며, 성찰 저널 및 유사 경험이 있는 타인 검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그리고 개인적 경험과 거시적 이론적 개념과의 연결을 통해 학구성을 담보해야 한다(이동성, 2020). 이 중 구성타당도와 신뢰성 확보 차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참여자(구성원) 검증은 국내 상담학 분야 자문화기술지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한 하나의 장치로도 활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김수안, 김명찬, 2021), 이러한 경향성은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가족들로부터 공식적인 연구동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Duncan (2004)의 평가 준거에 따라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해 나갔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가족들의 검토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 윤리 또한 담보해 나간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인격과 사생활 보호, 자기결정권 존중, 안전과 복지 보장, 심리적, 신체적 손상이 있을 경우 연구의 즉각 중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가 참여자들에게 고통이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경우나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에만 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었듯이 연구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연구에 대한 불만이나 거부를 강력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자도 가족들에게 연구의 시작을 가볍게 언급한 후, 연구 결과가 도출된 후에야 논문 읽을 기회를 제공하면서 동의를 얻어 출판하였지만 가족들의 동의가 순수한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에 Ellis(2007)는 연구자의 윤리를 다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연구 참여자와 함께 나눌 것을 제안하였다(이현진, 김명찬, 2018). 상담학 분야의 자문화기술자인 김명찬(2015, 2022)의 연구는 참여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논문에 적극적으로 명시하거나 논문에 대한 참여자들의 갈등이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Ellis(2007)의 제안이 구현

된 하나의 모범이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은 자문화기술지 연구과정에서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자의 개인적(사적) 경험을 다른 연구에서 뚜렷하게 나타냈다. 참여자들이 다른 연구주제들은 ‘가족의 상실’, ‘수치심’, ‘성폭력 피해’, ‘열등감’, ‘죄책감’, ‘좌절’ 등 트라우마(trauma)에 준하는 경험들이 다루어졌다. DSM-5(APA, 2013)에서 트라우마는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및 성폭력을 실제로 경험하거나 위협을 느낀 직접 외상뿐 아니라,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외상 사건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는 것과 외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하는 대리 외상이 포함된다. 또한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의 ICD-11(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2018)은 발달단계에서 장기적으로 반복된 만성적인 사건에의 노출로 인한 복합 트라우마(Complex Trauma)도 트라우마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김정란 등, 2019). 트라우마의 부정적인 결과는 과거가 현재 속으로 끊임없이 침습하는 것으로, 고통스러운 기억과 플래시백(flash back), 악몽, 그리고 트라우마 당시 경험했던 강렬한 감정과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Allen, 2005).

참여자들은 연구 과정에서 자신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수치스럽고 초라한 감정을 다시 경험함으로써 연구의 지속을 고민하거나 논문 작업을 회피하고 미루는 것을 반복하였다. 참여자6은 자문화기술지 연구가 일생의 최고 스트레스 경험이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보고한 ‘직면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은 연구과정이 아닌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되어 왔다. 황채운 등(2009)의 상담 대학원 석사과

정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원생들은 수업이나 개인상담, 그리고 집단상담 등을 통해 그동안 간과했던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두려움과 극한 감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빈과 조성호(2009)의 초보상담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연구에서도 상담수련과정에서의 상담자의 자기직면은 하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은진과 이문희(2015)의 연구는 초심상담자들이 자기문제를 이해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부분이 드러나는 것에 고통스러움'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직면으로 인한 정서적 고통은 자문화기술지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경험되었으며 연구 수행에 있어서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Ayduk과 Kross(2010)는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종종 자기몰입적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적응적인 자기성찰이 되기 위해서는 심리적 거리가 중요하고 강조하였다. 송슬기(2022)는 초보상담자의 자기문제 극복의 대안으로 '스스로'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여 내재적 자기비판을 하는 자기반성의 사유인 아도르노의 '부정성' 사유를 제안하며, 자기 안의 부정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그동안 외면해온 불편함을 마주하기 위해 부정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아직 숙련된 전문가가 아닌 상담 대학원생들에게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버티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심리적 간격을 유지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가 되는 자문화기술지 연구의 특성과 개인적(사적) 경험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자문화기술지 연구자는 자칫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연구의 입문 단계에 있는 상담 대학원생들의 경우 자기 직면에 대한 두려움이나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고착되어 전문가로서 성장과 발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과정에서 경험하는 연구자의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고 지지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 환경을 위한 장치 마련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극복 의지'와 '주변의 지지와 지원', 그리고 '선행연구를 통해 함께 공명함으로써 피어난 사명감' 등으로 정서적 고통을 버틸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서 안전한 환경이 되는 주변의 지지와 지원은 구체적으로, 자문화기술지 연구팀, 지도교수, 개인 및 집단 상담, 동료나 지인, 가족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연구팀이나 지도교수는 연구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문적 공동체가 된다. 여러 연구에서도 지도교수와 동료들의 정서적 지지 및 피드백은 연구로 인한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elamont et al., 2000; Kluever et al., 1997; Schlosser & Gelso, 2001; Pauley, 2004). 반면 연구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도교수와 동료와의 안전하지 않은 관계 경험은 연구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바, 연구자가 연구 수행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고통과 안전한 장치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차원이 아닌 방법론적 차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변화와 성장의 동력으로 경험적 글쓰기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학문 분야에서 연구로부터 얻은 새로운 결과는 학문적 글쓰기를 통해 학문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과 공유함으로써 학계로부터 인정받고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Becher & Trowler, 2001; 김혜나 등, 2013에서 재인용). 이는 학위 및 학술지 논문을 출판해야 하는 대학원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학문적 글쓰기는 대학원 과정에서의 주요한 주제가 된다. 학문적 글쓰기는 필자의 목적과 표현 수준이 명확하다. 학문적 글쓰기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간단하게 정리하는 수준의 요약하기부터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는 창의적인 글쓰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발전적이며, 전문적이고 상세하다. 또한 학문적 글쓰기는 필자가 속한 학문적 담화공동체의 역할과 사회적 지향점에 의거하여 계획적이며, 문제해결적이라고 할 수 있다(김선민, 2008).

자문화기술지 또한 학술적 자료로서 학문적 글쓰기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성(2016)은 자문화기술지적 글쓰기를 삶의 방식이자, 발견과 분석의 방법으로, 연구 주제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도록 촉진하는(Richardson, 1994) 유연하고 창의적인 글쓰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글쓰기와 차별성을 두었다.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통한 자기탐색 과정이 경험에서 끝나지 않고, 글쓰기를 통해 논문화한 것이 변화와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보았다. 참여자들은 자문화기술지 연구에 대해 ‘개인상담이 경험적 학습이라면 자문화기술지는 경험적 학습과 이론화 과정의 집합체’, ‘경험을 정리하고 되새김질하며 자신의 느낌을 독자들이 최대한 똑같이 느끼도록 글을 작성하는 것’, ‘비밀유지가 되는 폐쇄적인 상담과 달리 기록으로 남아 누구나 볼 수 있는 개방성’, ‘생각으로만 담지 않고 정형화된 언어로 정리하는 성찰적 글쓰기의 힘’, ‘정해진 시간의 제약이 있는 상담과 달리 순간순간의 감정을 깊

이 들여다보고 생각하며 글로 적는 탐색과정’ 등 경험적 글쓰기를 가장 의미 있는 작업으로 꼽았다. Griffith와 Frieden(2000)도 경험에 대한 글쓰기는 학습자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임상적 판단을 방해할 수 있는 가정과 신념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개발하는데 기여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다양한 관점의 경험적 글쓰기를 통해 성찰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이해와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참여자들은 학술지의 높은 심사기준을 맞추기 위한 작업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객관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동성(2016)도 학위 및 학술지의 심사과정을 통해 연구자 개인의 기억자료와 주관적인 내러티브를 다루는 자문화기술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과정은 경험적 자료를 학술적 준거에 따라 학문적 자료로 변형하는 과정으로, Skovholt와 Rønnestad(1992)가 강조한 경험에 기반 한 일반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의 전문성은 숙련됨에 따라 받은 지식으로부터 구축한 지식으로의 이동이 필요하며, 개인이 기능하는 방식은 불분명하고 선입견적, 이념적인 것에서 자기 자신의 통합된, 경험에 기반 한 일반화, 또는 “경험으로 쌓은 지혜”로의 변화가 요구된다. 경험 기반 일반화를 토대로 구축되는 ‘경험으로 쌓은 지혜’를 활용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해당 분야의 핵심적 지식에 대한 고도로 통제되고 철저한 연구에 관여해야 한다. 이런 이론-연구를 기반으로 수백 시간의 경험을 통해 유용한 일반화를 만들 수 있고, 이는 다시 경험으로 쌓은 지혜를 낳는다. 그리고 이 과

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의미한 경험에 대해 의식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성찰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Skovholt, Rønnestad, 1992).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은 연구자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경험에 기반한 일반화와 경험으로 쌓은 지혜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의 일환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은 상담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관점을 성취하게 되는 자기성찰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자기성찰(self-reflection)은 1992년 Skovholt와 Rønnestad의 연구를 통해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핵심기제로 밝혀졌으며, 상담자와 슈퍼바이저의 필수 요건이자 숙련 상담자와 일반 상담자를 구별하는 역량으로 간주되었다(Prasko et al., 2021, 김수안, 김명찬, 2023에서 재인용). 황주연과 정남운(2010)은 상담자 자기성찰을 상담자의 개인적·전문적 측면과 이들의 상호 연관성 차원에 대한 자각, 탐색 및 분석, 이해 및 변화의 방향성을 가진 내부 지향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보자면, 참여자들은 해결하고 싶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와 해결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탐색과 분석을 진행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변화로 이어지는 자기성찰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이 보고한 ‘경험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살펴보면, 연구 주제가 ‘자신의 삶을 묵직하게 지배하고 힘들게 한 평생의 이슈’였음을 깨닫게 되었거나 ‘해결되지 않았던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오랫동안 자신을 억압했던 문제에서 ‘카타르시스나

해방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변화는 인식과정 등 참여자의 개인 내적 차원과 더불어 관계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소중함과 자신감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신을 돌볼 수 있게 되었다. 대인 관계에서도 이전에는 나눌 수 없었던 대화가 가능해졌으며 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편안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내담자와도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까지 나눌 수 있는 진솔한 관계 경험이 가능해졌다. 즉, 자문화기술지가 ‘자기 이해에서 타인 이해로 귀결되는 방법’이라는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참여자들은 다양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 상담심리학적 관점, 그리고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관점 등으로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주관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체 대 주체로서의 진정한 상호주관성의 관계(이남인, 2003)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umphreys(2005)도 자문화기술지에서 스스로의 목소리로 자기(self)와 사회, 문화 간의 연계(connection)를 관찰하고 성찰(reflexivity)의 과정을 겪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작업으로 보았다(김영천, 이동성, 2011). 이와 같이 자신의 주관적 경험을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숙고해 나가는 자문화기술지 연구과정은 참여자들에게 경험에 대한 이해와 변화뿐만 아니라 성찰의 습득 및 강화의 기회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를 통한 성찰 경험에 의해 상담상황이나 좌절상황에서 자신을 알아차리고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의식적인 성찰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앞서 자료수집에서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에서 활용된 논문들은 Ellis와 Adams(2014)의 평가 준거에 따라 연구자의 질문이 어떻게 이

해되고 해결되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연구들로, 모든 자문화기술지가 성찰적 과정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문화기술지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해석하고 통찰로 연결하는 대신 지나치게 자신의 이야기만을 기술하는 것은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박순용 등, 2010; 서유진, 2020; Chang, 2008). 참여자들 또한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만으로 긍정적인 변화에 도달할 수 없으며 의미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과 열성을 다하는 연구자의 준비가 전제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어떻게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을 상담자의 성찰역량과 통합적 전문성 발달에 부응하는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상담 분야 자문화기술지자들의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문화기술지 연구방법은 방법론적 취약점과 낮은 학술적 엄밀성, 정서적 고통에 대한 안전장치, 성찰의 매개체로서 활용방안 등 다양한 보완점들이 잔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문화기술지는 연구자의 준비도에 따라 상담 대학원생들의 자기이해 및 전문가로서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적 수단이자 성찰적 태도와 경험으로 쌓은 지혜를 구축할 수 있는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담 대학원생의 교육과 훈련에 대한 질적 만족이 미흡하고 전문성 증진에 초점을 둔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담 대학원생의 자기탐색과 자기성찰을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을 탐색하였다. 자문화기술지는 상담 대학원생들에게

자신의 역량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학습의 장이 된 반면, 연구 윤리의 문제와 연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 그리고 성찰 매개체로서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둘째,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은 상담자 전문성 발달의 핵심기제인 자기성찰을 습득하고 강화하는 경험이 되었다. 국내 상담자 자기성찰 연구동향(김수안, 김명찬, 2023)에서 자문화기술지가 상담 대학원생들의 자기성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으로 확인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은 상담 대학원생들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성찰 습관을 강화하고 자기를 돌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성찰과정이 이해와 변화로 연결되기 위해서 연구자의 준비도가 무엇보다 요구됨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위해 선정된 논문은 Ellis (2014)가 제안한 자문화기술지 평가 준거가 잘 구현되었을 뿐 아니라 연구 결과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해결하여 변화와 성장하고자 하는 주체적이고 실질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를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개인적(사적) 경험을 연구주제로 다루었기 때문에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의 전형으로 간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자의 성찰 역량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 제안되는 자문화기술지의 연구 수행과정 전반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연구자들의 구체적 성찰 경험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상담 대학원생으로, 초보상담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중급 혹은 숙련 상담자들의 자문화기술지 연구 수행 경험과는 차별될 수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국내 상담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사회문화적 관점에 제한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고홍일, 권경인, 김계현, 김성희, 김재철, 김형수, 서영석, 이형국, 탁진국, 황재규 (2013). 상담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교육통계서비스 (2021). 대학원 계열별 학과수 및 재적학생수. <https://kess.kedi.re.kr/index>
- 김경희, 임은미 (2014). 상담전공 대학원생이 수업 중 집단상담에서 경험한 자기성장의 의미. 상담학연구, 15(1), 195-215.
- 김길민, 정남운 (2004). 초심상담자가 상담 회기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과정: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0.
- 김명찬 (2015). “상처 입은 아버지와 아들”의 회복에 대한 자문화기술지. 교육인류학연구, 18(4), 85-120.
- 김명찬 (2022). 자녀가 있는 중년남성의 이혼 관념 재구성 경험에 관한 자문화기술지. 질적탐구, 8(4), 259-286.
- 김선민 (2008). 학문적 글쓰기의 유형, 구조, 지도 단계. 한국초등국어교육, 38, 51-82.
- 김수안, 김명찬 (2021). 국내 상담학 분야의 자문화기술지 연구동향. 질적탐구, 7(4), 1-33.
- 김수안, 김명찬 (2023). 국내 상담자 자기성찰 및 성찰적 실천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1), 1-32.
- 김영은, 이현정 (2015). 상담실습 수업을 통한 대학생들의 자기성장 경험 연구: 융합적 교육방법을 활용한 수업사례 연구. 한국융합학회논문지, 6(5), 315-328.
- 김영진, 김명찬 (2021). 상담전공 석사과정 대학원생이 겪은 연구의 어려움과 대처경험. 질적탐구, 7(1), 245-277.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과주: 아카데미 프레스.
- 김영천, 이동성 (2011). 자문화기술지의 이론적 관점과 방법론적 특성에 대한 고찰. 열린교육연구, 19(4), 1-27.
- 김은하, 백지연 (2019). 집단상담 실습수업에서의 리더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상담학연구, 20(3), 165-189.
- 김정란, 장유정, 조 항 (2019).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의 트라우마(trauma) 연구동향 (2001-2017). 상담학연구, 20(1), 67-91.
- 김정택, 도상금 (1993). 상담가 교육에 대한 연구대학원 석사과정 상담 교육의 현황과 전문상담가 양성 인턴십을 위한 제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5(1), 13-29.
- 김혜나, 김대현, 이태영, 강이화 (2013). 대학원생의 학문적 글쓰기 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6(1), 35-57.
- 박순용, 장희원, 조민아 (2010). 자문화기술지: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본 교육인류학적 가치의 탐색. 교육인류학연구, 13(2), 55-79.
- 박지현, 김현주 (2020). 상담전공 대학원생의 석사학위 논문작성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4(3), 121-156.
- 서유진 (2020). 특수교육 분야에서의 자문화기

- 술지 연구 동향분석 및 향후과제. 특수아
동 교육연구, 22(4), 135-164.
- 안현희 (2003).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국내 적
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61-475.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story.
- 이경화, 이상희 (2022). 상담수련생의 심리상담
사 직업에 대한 인식유형 연구. 주관성연
구, 61, 63-83.
- 이남인 (2003). “발생적 현상학과 상호주관성의
문제”. 철학사상, 16, 29-70.
- 이남인 (2006). 후설의 현상학과 현대철학. 서
울: 풀빛미디어.
- 이동성 (2016). 국내 자문화기술지의 연구동향
분석. 초등교육연구, 27(2), 85-105.
- 이동성 (2020). 질적 연구와 자문화기술지. 서
울: 아카데미프레스.
- 이상현, 이규미 (2011). 교사들의 교육대학원
상담교육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에 관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8(3),
287-306.
- 이수영, 윤미선, 김영은 (2015). 성찰일지를 통
한 상담전문가 발달 경험: 융합적 교육방
법의 상담실습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
문지, 6(6), 43-56.
-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전공 대학원 교
육과정 표준화 연구. 교육학연구, 40(2),
231-250
- 이윤주, 문명현, 송영희, 김미연, 김예주, 김여
흠, 지연정 (2014). 알기 쉬운 상담연구방
법: 학위논문 작성에서 학술논문 투고까지.
서울: 학지사.
- 이은진, 이문희 (2015). 초심상담자의 자기문제
이해 및 극복과정. 상담학 연구, 16(3),
1-24.
- 이장호, 정남운, 조성호 (2005). 상담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 이재창 (1996). 전문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
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료, 8(1), 1-26.
- 이현진, 김명찬 (2018). 상담학 질적 연구 동향
분석(2012년~2017년): 상담 관련 국내 학
술지 및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계
재논문 비교중심으로. 상담학 연구, 19(3),
73-96.
- 송슬기 (2022). 초보상담자의 인간적 자질 향상
을 위한 자기이해: 아도르노의 부정성 이해
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상담대학
원대학교.
- 정경빈, 조성호 (2009). 초보상담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인간이해, 30(2),
45-60.
-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2015). 상담전공 학부
생의 교육과정 경험 연구. 상담학연구, 16
(3), 303-324.
- 조영매 (2017).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에 대
한 현상학 연구: 재난에 투입된 상담자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8(1), 67-85.
- 조유진, 유성경, 박소현, 윤민지, 장운진 (2010).
상담 석사 과정에 대한 석사생들의 교육
경험 및 만족도 분석. 인간이해, 31(2),
103-122.
- 채유경 (2019). 집단미술치료 수업을 통한 상
담전공 대학원생의 자기성장 과정에 관한
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9(1), 1-21.
- 최아롱 (2011). 한국의 상담자 전문교육과정의
적합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최현국 (2020). 상담자 전문성 발달과 상담교
육 실태에 관한 고찰. 상담심리교육복지,

- 7(2), 199-223.
-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 상담심리 석 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30.
- 황채운, 박지아, 유성경, 강지연 (2009). 상담 일반: 상담전공 대학원 석사과정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0(3), 1359-1382.
- 황주연, 정남운 (2010). 상담자 자기성찰 (Self-Reflection)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2), 241-263.
- Alis, N., Jaafar, W. M. W., & Ayub, A. F. M. (2018). Promoting counseling competence using self-reflection. *MATEC Web of Conferences*, 150(05072), 1-8.
- Allen, J. (2005). *Coping with trauma: Hope through understanding*.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th ed.). Arlington, VA: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 Ayduk, Ö., & Kross, E. (2010). From a distance: implications of spontaneous self-distancing for adaptive self-refle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5), 809-829.
- Becher, T., & Trowler, P. (2001). *Academic tribes and territories*. McGraw-Hill Education (UK).
- Belar, C. D. (2000). "Scientist-practitioner ≠ science + practice: Boulder is bolder." *The American Psychologist*, 55(2), 249-250.
- Berry, K. (2006). Implicated audience member seeks understanding: Reexamining the "gift" of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3), 94-108.
- Chang, H. (2008). *Autoethnography as method*. CA: Left Coast Press.
- Delamont, S., Atkinson, P., & Parry, O. (2000). *The doctoral experience: Success and failure in graduate school*. London: Falmer Press.
- Dimaggio, G., Lysaker, P. H., Carcione, A., Nicolo, G., & Semerari, A. (2008). Know yourself and you shall know the other... to a certain extent: multiple paths of influence of self-reflection on mindreading. *Consciousness and Cognition*, 17(3), 778-789.
- Duncan, M. (2004). Autoethnography: Critical Appreciation of an Emerging Art.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3(4), 28-39.
- Ellis, C. (2007). Telling secrets, revealing lives: Relational ethics in research with intimate others. *Qualitative Inquiry*, 13(1), 3-29.
- Ellis, C., & Adams, T. E. (2014). The purposes, practices, and principles of autoethnographic research. In P. Leavy (Ed.), *The Oxfor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254-27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erald, C. D. (1998). "Being bolder with boulder model: The challenge of education and training in empirically supported treatm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1), 163-167.
- Giorgi, A.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Thousand Oaks, CA: Sage.
- Griffith, B. A., & Frieden, G. (2000). Facilitating reflective thinking in counselor educat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0(2), 82-93.
- Humphreys, M. (2005). Getting personal:

- Reflexivity and autoethnographic vignettes. *Qualitative Inquiry*, 11(6), 840-860.
- Jones, S. H. (2005). Autoethnography: Making the personal political.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3rd ed.). (pp. 763-791). Thousand Oaks, CA: Sage.
- Kluever, R. C., Green, K. E., & Katz, E. (1997). Dissertation completers and noncompleters: An analysis of psycho-social variabl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Chicago, IL.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Morrisette, P. J. (2002). *Self-supervision: A primer for counselors and helping professionals*. New York: Brunner-Routledge.
- Murphy, D. (2005). A qualitative study into the experience of mandatory personal therapy during training. *Counselling & Psychotherapy Research*, 5(1), 27-32.
- Pauley, D. (2004). Group therapy for dissertation-writers: The right modality for a struggling popula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sychotherapy*, 18(4), 25-43.
- Prasko, J., Abeltina, M., Vanek, J., Dicevicius, D., Ociskova, M., Krone, I., ... & Bagdonaviciene, L. (2021). How to use self-reflection in cognitive behavioral supervision. *Activitas nervosa superior rediviva. Bratislava: Institute of Normal and Pathological Physiology*, 63(2), 68-83.
- Richards, B. (2002). Ripples in the pond: A qualitative study of graduates' perceptions of the impact of counselling training upon their work within the core professions. *Psychodynamic Practice*, 8(4), 443-461.
- Richardson, L. (1994). Writing: A Method of Inquiry. In N. K. Denzin & Y. S. Lincoln (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pp. 516-529). Thousand Oaks, CA: Sage.
- Rober, P., & Rosenblatt, P. C. (2017). Silence and memories of war: An autoethnographic exploration of family secrecy. *Family Process*, 56(1), 250-261.
- Schlosser, L. Z., & Gelso, C. J. (2005). The advisory working alliance inventory Advisor Version: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4), 650-654.
- Schön. D. A. (1983). *The reflective practitioner: How professionals think in action*. NY: Basic books.
- Schön. D. A. (1987). *Educating the reflecting practitioner*. San Francisco: Jossey-Bass.
- Skovholt, T. M., & Rønnestad, M. H. (1992). Themes in therapist and counselo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0(4), 505-515.
- Skovholt, T. M., & Starkey, M. T. (2010). The three legs of the practitioner's learning stool: practice, research/theory, and personal life. *Journal of Contemporary Psychotherapy*, 40(3), 125-130.
- Suominen, A. (2003). *Writing with photographs, re-constructing self: An arts-based autoethnographic inquir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Tobin, D. J., & McCurdy K. G. (2006). Adlerian-focused supervision for countertransference work with counselors-in- training. *Journal of Individual Development*, 62(2), 154-167.

- Wall, S. (2006). An autoethnography on learning about autoethnography. *International Journal of Qualitative Methods*, 5(2), 146-160.
- Wheeler, S. (2007). What shall we do with the wounded healer? The supervisor's dilemma. *Psychodynamic Practice*, 13(3), 245-256.
- Wimberly, E. P. (1997). *Recalling our own stories: Spiritual renewal for religious caregiver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원 고 접 수 일 : 2023. 04. 17

수정원고접수일 : 2023. 07. 31

게 재 결 정 일 : 2023. 08. 21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s of Conducting Autoethnography Research by Counseling Major Graduate Students

Suan Kim

Inje University / Ph.D.

Myeungchan Kim

Inje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This study aimed to provide an in-depth exploration of the experiences of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conducting autoethnography researc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n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who had experience in this type of research. Applying Giorgi's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o the collected data, we derived seven upper categories, 31 lower categories, and 75 semantic units. The study revealed that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experience with autoethnography research encompasses elements such as 'an honest research method allowing them to contain their own experiences,' 'a research gateway causing conflict,' 'unexpected hardships and extreme pain,' 'will to overcome, support, a sense of duty,' 'understanding and transformation through experiential writing,' 'deepening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and 'the method's value is the researcher's responsibility.' The discussion covers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results and its limitations.

Key words : Counseling graduate students, autoethnography, self-reflection, research experience, experiential writing